



##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중국의 청각장애학생을 중심으로 -<sup>\*</sup>

양 초 연<sup>\*\*</sup> · 권 순 우<sup>\*\*\*</sup>

### A Qualitative Study on Transition Experiences from General to Special Schools -with a Focus on Hearing-Impaired Students in China-<sup>\*</sup>

Yang, Chao-Ran<sup>\*\*</sup> · Kwon, Soon-woo<sup>\*\*\*</sup>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environments experienced by hearing-impaired students, an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hearing-impaired students thought were necessary for a pleasant school life and their opinions about inclusive education. **[Method]**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hearing-impaire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ina, who transferred from the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of general schools to the special learning environment of special schools. **[Results]** First,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school life at general schools, it is very difficult for hearing-impaired students to continue their learning activities at general schools. Second, They were able to have an emotionally stable school life through positive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eachers. They described their friends at special schools as kind classmates who helped them in any situations, and teachers as kind teachers who cared for them with patience. Third, Hearing-impaired students always wanted to interact with teachers, which suggested that their learning and feeling a pleasure in such an environment were likely to generate positive effects even in academic aspects. In addition, hearing-impaired students could gain confidence through good friendships, and therefore, if interactions between hearing-impaired and normally hearing students are facilitated and they can build friendships in a relaxed atmosphere of mutual understanding, it can become good conditions for a pleasant school life. **[Conclusion]** In terms of inclusive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academic aspects, they stated that they could learn more knowledge and build friendships with various friends at general schools. However, they found it difficult to understand their lessons due to practical issues and had limitations in class participation, and thus preferred special schools.

**Key Words** : Hearing Impairment, Individual In-depth Interview, Transition Experiences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22년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  
Doctoral Student,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소장(ksww1114@hanmail.ne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중국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은 ‘분리교육’에서 ‘통합교육’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양한 경로로 장애학생에게 교육환경을 정상화하고, 장애학생은 청인학생과 동등하게 일반학교에서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존엄과 사회적 공정성을 추구한다. 2017년 중국 정부가 통합교육을 적극 도입한 이래 중국의 통합교육은 양과 규모면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435,800명으로 장애학생의 49.47%를 차지한다. 중국 사회에서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는 분리된 특수학교보다 교육환경이 좋은 일반학교에서 자녀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주류로 복귀하는 것이 장애학생의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教育部, 2020).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을 일반교육에 최대한 접목하는 것을 말하며(中國殘疾人聯合會, 2017), 장애학생과 청인학생이 함께 동일 공간의 교실 환경에서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교육을 보장받는 것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의 의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존중받는 인격체로 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일반학교(급)에서 수업 참여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갖는 것이다(박미혜, 권순우, 2020). 또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을 재구성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일반학급에서 청인학생과 같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며(鄧猛, 2004), 인근 지역의 문화·수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장려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일반학교의 거부감을 줄이자는 주장이다(Booth, 2003).

2017년 중국 ‘장애인교육조례’에서는 장애인 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통합교육을 적극 추진하며, 장애인의 장애 분류와 수용 능력에 따라 일반교육 또는 특수교육으로 교육하되 일반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은 법률로써 사회적 호응을 얻으면서 장애학생을 둔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학교도 국가 법령에 맞춰 부설 특수학급 설치와 통합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학자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는 꾸준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교육을 키워드로 하여 중국 논문 플랫폼인 ‘중국지망(中國知網)’을 검색해 본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관련 저널 논문 수는 6,238편, 학위논문은 326편으로 나타났다. 2010년 383건이던 통합교육 저널 발표 건수가 2020년 1,202건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최근 10년간 중국 내 통합교육의 발전은 괄목한 수준이다. 그 내용을 정

리하면 첫째,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어로 된 다른 나라의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이고, 둘째, 교육과정과 교육 이념, 사회적 효과가 융합된 연구이다. 셋째는 성공적인 통합교육 사례 연구, 넷째는 통합교육 참여학생과 관리자, 교사, 학부모, 청인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사회학적 관계 연구이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통합교육의 첫 걸음은 개념, 이념의 도입 보급, 이후 통합교육의 실증적 연구, 통합교육에 대한 반성과 논증, 최근의 연구 방향은 교과과정 사정, 학제 간 교학 지원 등 더욱 구체적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여전히 지적장애학생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周潤嬌, 2019).

이처럼 중국의 통합교육은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추진으로 더 많은 장애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습 기회와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통합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鄧猛, 2004). 즉, 통합교육을 시작한 이래 의무교육의 취학률은 크게 높아졌지만 통합교육의 질은 높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통합교육은 장애학생이 학령기에 일반학교에 입학해 청인학생과 차별없이 지원을 받고, 일반학교에서 학습함으로써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함과 동시에 지식과 기능, 태도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와 졸업 후 전문인력이 되고,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여 주류사회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梁旭, 2017). 그러려면 분리교육인 특수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특수학교 저학년 취학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학년 학생의 입학은 계속 늘어 정저우(鄭州)시의 한 특수학교의 경우 매년 3명 내·외의 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오고 있다.

장애학생과 청인학생이 같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통합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학교와 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은 요구가 낮고, 일반학교에 입학하여 잘 듣지 못하는 현상이 심해져 수업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말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그들의 언어능력이 서서히 퇴화하고, 어떤 학생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어 언어 공백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餘小燕, 2007).

청각장애인들의 교육기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각장애 교육에 대한 요구는 이미 단순한 유·무의 관계가 아니라 더 나은 질적 교육 여건을 요구받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사회관계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로서 교육기본권을 보장받아야 사회에 더 잘 편입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과 태도도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들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청각장애인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단계에 대한 요구를 이해할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도 통합교육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학생들의 시각을 통해 통합교육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통합교육 경험

과 분리된 특수교육 경험이 있는 청각장애학생들은 두 모델의 시행 과정의 장·단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발견할 수 있다(金晨潔,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교육 환경인 일반학교와 분리교육 환경인 특수학교 생활을 모두 경험한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일반학교 생활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일반학교를 계속 다니지 않고 왜 특수학교로 전학을 했는지, 일반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통합교육을 포기하고 선택한 분리교육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한 청각장애학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통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회류현상의 원인을 알아보고, 청각장애학생이 생각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에는 어떤 요인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둘째, 청각장애학생의 특수학교 생활은 어떠했는가?

셋째, 청각장애학생이 생각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 3. 용어 정의

1) 수반취득(隨班就讀: Learning in General Education Classes): 중국의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주요 방식이자 중국 통합교육의 주요 형태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급)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받는 학습 형태를 말한다. 주로 경도 지적장애, 난청, 저시력 등의 경한 장애학생들이 이에 속한다.

2) 회류현상(回流現象: Refluxed Problem): 청각장애학생들이 일정 학년(초 4-5학년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어려워 특수학교나 어학 훈련기관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말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A Qualitative Study on Transition Experiences from General to Special Schools -with a 111 Focus on Hearing-Impaired Students in China-*

본 연구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한 중국의 중·고등학교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현황과 언어능력을 파악하여 그 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7명의 학생이 연구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는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ts**

Name	Sex	Age	Birth year and month	Primary/secondary communication languages	When disability occurred	Hearing test result	비고
A	Female	14	2007. 6	Spoken/sign languages	1 year	Left : 120dB Right : 120dB	Left: · Right: cochlear implant
B	Male	17	2004.12	Spoken/sign languages	0 year	Left : 110dB Right : 120dB	Left: · Right: cochlear implant
C	Female	17	2004.11	Spoken language	6 year	Left : 85dB Right : 85dB	Left: hearing aid Right: hearing aid
D	Male	16	2005. 5	Spoken language	6 year	Left : 80dB Right :100dB	Left: hearing aid Right: hearing aid
E	Male	18	2003. 4	Spoken/sign languages	3 year	Left : 93dB Right : 92dB	Left: hearing aid Right: cochlear implant
F	Female	17	2004. 3	Spoken language	2 year	Left : 86dB Right : 87dB	Left: hearing aid Right: hearing aid
G	Male	20	2001. 8	Spoken language	0 year	Left : 95dB Right : 95dB	Left: hearing aid Right: hearing aid

##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중국의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적인 심층 면담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개별적인 심층 면담의 질문지는 개방형 질문지 형식으로 작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을 하기 전, 이들에게 본 연구에 관한 자세한 목적과 관련 설명을 사전에 진행하였고, 온라인에서 줌으로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10일까지이다. 또한 면담의 주요 내용을 이해한 후 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이 끝난 후 보완이 필요

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충하였고, 면담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1명당 면담 시간은 약 90분 내·외였으며, 학생에 따라 길게는 120분인 경우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7명을 실시간 비대면 동영상으로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통합교육 환경인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생활을 모두 경험한 청각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일반학교 생활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일반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특수학교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한 청각장애학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고, 이를 통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회류현상의 원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청각장애학생이 생각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에는 어떤 요인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면담이 진행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심층 면담 내용은 면담 시의 녹음된 내용, 면담 상황이나 내용을 정리한 필드 노트 등을 기본으로 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이를 바르게 유목화하여 분석하였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 3. 자료 수집과 분석

#### 1) 자료 수집

##### (1) 질문지 제작

본 연구의 질문 내용은 김선애, 최성규(2009)의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김태숙, 권순우(2019)의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학생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기대에 관한 연구, 박미혜, 권순우(2020)의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에서 사용한 설문지와 조은주(2014)의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환한 경도 지적장애학생의 학교생활 경험에 사용되었던 설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2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다소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자와 함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가졌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에 맞게 대화와 답변을 하도록 수정하고, 면담 중 질문 내용 및 면담 주제는 3단계로 구성하였다. 단계 1은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교에서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담임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수업 내용 및 참여 정도, 과제와 시험 등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Table 2> Experience at General School**

Interview topic	Questions
Overall school lif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What is your general feeling about studying at the general school? Please describe in detail.</li> <li>2. Have you ever missed a school day or cut classes at the general school? If yes, what was the reason?</li> </ol>
Relationship with HR teacher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ow would you describe your homeroom teacher?</li> <li>2. Did your HR teacher help your school life or not?</li> <li>3. Did you have teachers you liked at the general school? If yes, why did you like them?</li> </ol>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ow was your experience of spending time with your class mates at the general school?</li> <li>2. Did you have classmates you were close to? How did they treat you?</li> <li>3. How did you communicate with your classmates? How well could you communicate with them?</li> <li>4. Did you have unpleasant encounters with your classmates? Have you been bullied, beaten, or fought with your classmates? How did you resolve such conflicts?</li> <li>5. Do you have classmates from the general school that you keep in touch with? What would you like to say to them if you meet them?</li> </ol>
Learning materials & class particip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What was your feeling about attending classes at the general school?</li> <li>2. Were the learning materials at the general school challenging? If yes, how did you manage them?</li> <li>3. How did you communicate with the teachers at the general school? How well could you communicate with them?</li> </ol>
Assignment & exam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ow did you do your assignment at the general school?</li> <li>2. How did you prepare for classes in advance and review them afterward?</li> <li>3. How did you prepare for an exam at the general school? What kind of difficulties did you have preparing for an exam?</li> <li>4. How were your exam scores at the general school? How much were you stressed about grades? How did you cope with your stress about grades?</li> </ol>

단계 2는 청각장애학생의 특수학교에서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담임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수업 내용 및 참여 정도, 과제와 시험 등을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Table 3> Experience at Special School

Interview topic	Questions
Overall school life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What is your general feeling about studying at the special school? Please describe in detail.</li> <li>2. Have you ever missed a school day or cut classes at the special school? If yes, what was the reason?</li> <li>3. What is your thought on attending the special school?</li> </ol>
Relationship with HR teacher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ow would you describe your homeroom teacher at the special school?</li> <li>2. Did your HR teacher help your school life or not? (Please tell us about memorable anecdotes regarding your HR teacher if you have any.)</li> <li>3. How was your HR teacher different from HR teacher at the general school?</li> </ol>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ow would you describe your relationship with classmates?</li> <li>2. How are your classmates different between the special school and the general school?</li> <li>3. How do you communicate with your classmates? How well can you communicate with them?</li> <li>4. Did you have unpleasant encounters with your classmates? Have you been bullied, beaten, or fought with your classmates? How did you resolve such conflicts?</li> </ol>
Learning materials & class participa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What is your feeling about attending classes at the special school?</li> <li>2. Are the classes at the special school challenging? If yes, how do you manage them?</li> <li>3. How do you communicate with the teachers at the special school? How well can you communicate with them?</li> </ol>
Assignment & exam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How do you do your assignment at the special school?</li> <li>2. How do you prepare for classes in advance and review them afterward?</li> <li>3. How do you prepare for an exam at the special school? What kind of difficulties do you have preparing for an exam?</li> <li>4. How are your exam scores at the special school? How much are you stressed about grades? How do you cope with your stress about grades?</li> </ol>

단계 3은 연구 참여자의 일반학교에서의 스트레스와 즐거운 학교생활, 연구 참여자의 특수학교에서의 스트레스와 즐거운 학교생활 등을 알아보았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Table 4> School Life: Stress & Fun**

Interview topic	Question
Stress & fun at general school	1. Was your school life enjoyable at the general school? 2. Were there times you were stressed while attending the general school? 3. What was the most satisfying aspect of attending the general school? 4. What was the most dissatisfying aspect of attending the general school?
Stress & fun at special school	1. Was your school life enjoyable at the special school? 2. Were there times you were stressed while attending the special school? 3. What was the most satisfying aspect of attending the special school? 4. What was the most dissatisfying aspect of attending the special school?

※ What do you think make school life fun and enjoyable?

**(2) 면담 절차**

면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연구 참여자에게 면접 취지와 면접 방법, 연구자 윤리 등에 관해 안내해 주고, 연구자들의 확인을 받은 뒤 1:1 정식 면담을 시작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진행 정보는 <표 5>와 같다.

**<Table 5> Information on Conducting Interviews with Research Participants**

Participants	Date	Place	Time Required(minute)
A	2021.12. 9	Classroom	88
B	2021.12. 9	Classroom	92
C	2022. 1. 2	Home	105
D	2021.12.13	Home	120
E	2021.12.15	Classroom	75
F	2021.12.15	Classroom	80
G	2021.12.18	Classroom	120

**2) 자료 분석**

수집된 개별 면담 영상 내용, 면담 상황과 내용을 정리한 현장 노트 등을 전사 기반으로 전사한 내용에 대해 연구 목적에 따라 유목화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 면담 이후 전사를 통해 개별 심층 면담 결과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 자간 0’으로 작성했을 때 A4용지 총 48쪽 분량의 전사본이 나왔으며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동연구자와 연구자가 함께 잘못된 부분을 반복하거나 수정해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하

고 다시 보완했다.

면담에 대한 전사 자료의 분석은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유기웅 외, 2019).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면담 질문지와 전사된 면담 내용을 자세하게 읽고, 검토하여 대략적인 범주를 구성하였다. 둘째, 전사한 면담자료를 읽으며 한글 워드에 메모 넣기 기능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 혹은 구절을 기술하였다. 셋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대범주, 중범주, 소범주로 나누었으며, 수집된 자료 분석 결과 총 3개의 대범주, 7개의 중범주, 17개의 소범주가 도출되었다.

#### 4. 연구의 정당성 확보 및 윤리성 고려

##### 1) 연구의 정당성과 신뢰도 확보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검증의 중요함을 고려할 때 검증의 의의들을 수립하는 절차들과 관련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김영천, 정상원,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 절차에 따른 투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절차들을 김영천, 정상원(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풍부하고 상세한 기술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연구 결과의 전사성(transferability)에 관한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확인을 거쳤다. 이러한 점은 연구 결과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관점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김영천, 정상원, 2015)를 얻는 것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의 면담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자 본인이 연구내용에 주관적인 편차나 편향성을 갖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료 분석 단계에서 공동연구자와 재확인과 내용 보완을 하였다

##### 2) 연구의 윤리성 고려

질적 연구에서 연구 과정에 대한 윤리성 확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많은 대화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순간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윤리적 사고와 감정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의 경험 안에는 정서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측면들이 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7명과 개별 심층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자 전원에게 윤리적 준거에 따라 연구자의 소개와 연구 목적과 연구 절차에 대한 소개, 연구 참여를 통해 따르는 혜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일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학습의 어려움, 친구와의 관계, 일반학교 교사와의 관계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 결과의 면담 분석은 <표 6>과 같다.

**<Table 6> School life Experience at General School**

Main category	Medium category	Minor category	Concept
School life experience at general school	Difficulty of learning	Difficulty of class materials	Hard to understand, inefficient learning, hard to follow class, bored, don't feel like studying, gave up learning, teacher speaks too fast, too difficult learning materials, stressed, hard to hear teacher's voice
		Poor academic performance	Lowest grade in class, gave up exam, fear of exam, exam is too difficult, lack of preparation for exam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Difficult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Loneliness, bullying, unable to socialize with classmates, discriminatory treatment, lack of friend, lack of exchanges with classmates
		Easy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Cared for, good communication, always talks with an open mi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Negative memory of HR teacher	Lack of communication, inattention to me, treats me without sincerity, difficulty of communication
		Positive memory of HR teacher	Kind, strict, encourages and guides me, treats me comfortably, fair, good teaching, urges classmates to give care and attention to me

#### 1) 학습의 어려움

##### (1) 수업 내용의 어려움

학생들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라 수업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수

업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습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었고, 일반학교에서는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칠판에 필기를 많이 하셨는데 글씨가 가득 적혀 있는 칠판을 보니 부담감을 느꼈어요(연구 참여자 A).

수업을 알아듣지 못해서 지루하고 졸렸어요. 처음에는 학교 가기 싫었는데 나중에는 수업 시간에 짝꿍과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것들이 모두 수학 공식이라서 더 어렵다고 느껴졌어요.(연구 참여자 C).

수업이 너무 많아서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수업과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저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책 내용을 외우고 8시에 학교에 갔어요. 4교시 이후 오후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는데도 너무 어려워서 다 암기하지 못했어요(연구 참여자 F).

이상과 같이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과정에서 일반학교에서 학습하는 데 힘들었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 3명은 일반교사가 너무 빨리 수업을 진행해 수업 내용을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했다. 학습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한 연구 참여자도 4명이나 되었다. 7명의 연구 참여자 중 4명은 학업 포기로 인해 중학교 때 학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 (2) 하위권 성적

어려운 수업과 과중한 과제로 인해 청각장애학생들의 성적이 학급에서 하위권이라는 점, 중국의 학부모들에게 점수는 자녀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청각장애학생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이것을 언급하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합격한 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우리 반이 40명 정도였는데 저는 보통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였어요. 꼴등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처음에는 성적이 왜 중요한지 몰랐어요. 합격과 불합격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전학을 간 후에야 알았어요(연구 참여자 B).

제 성적은 우리 반에서 거의 꼴등이나 꼴등에서 2번째였어요.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처음 꼴등을 했을 때 올라가려고 노력했지만 거의 매일 꼴등을 차지하다 보니 무더졌어요(연구 참여자 E).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아주 많았어요. 한 달 밖에 배우지 않아서 중학교 1학년인데 잘 몰랐어요. 저희는 1단원, 2단원 이렇게 단원별로 나누어 시험을 봤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시험에 불합격하면 수학, 국어, 영어 과목이 불합격한 것으로 처리되었어요. 반에 40명이 있었는데 저는 보통 꼴등에서 여섯 번째였어요(연구 참여자 G).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교에서의 학업성취도 부분에서 대부분이 학급에서 하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3명은 꼴지에서 1, 2위를 차지했고, 2명은 하위권에서 10위를, 나머지 2명은 하위권에서 20위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듯 낮은 성적은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할 수 있다. 또한 점차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고, 이는 학생들의 친구 관계와 교사가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무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 친구와의 관계

### (1) 불편한 교우관계

불편한 교우관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통합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청각장애학생과 청인학생 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그 당시 반 친구들은 대부분 저와 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때는 제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고, 친구들 모두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가끔 몇 마디 했을 뿐 거의 교류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다른 친구들에게 거의 물어보지 않고 대부분 선생님에게 여쭙었어요. 저와 친구들 사이의 관계는 원래부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귀가 잘 안 들려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 놀았어요. 나중에 중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생겼는데, 그 친구 '위챗' 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삭제했어요. 그 친구랑은 지금도 가끔 '위챗' 으로 채팅하고 있어요(연구 참여자 F).

2학년 때 많은 반 친구들이 제 친구라고 했지만 저는 친구가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5학년이 되면서 저는 말수가 줄어들면서 친구가 줄었고, 저랑 성적 차이가 비슷한 친구만 남았어요(연구 참여자 G).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5명은 학교 교우관계에서 불편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연구 참여자 A와 B는 성적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특히 연구 참여자 B는 중학교 때 한 친구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초등학교 때에도 괴롭힘을 당했고, 연구 참여자 F와 G는 학교에서 학우들과 어울리지 않아 친구가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 (2) 편안한 교우관계

편안한 교우관계는 청각장애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외롭고 피곤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하며, 통합교육에 적응하는 좋은 요소이기도 하다. 본 연구 참여자 중에서 일반 학교에서 좋은 교우관계를 경험한 사례도 있다.

중학교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잘해 주었는데 제가 장애인이어도 편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친구와 함께 놀고, 얘기하고, 게임하고, 우리는 다른 또래 친구들과처럼 가십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각자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하고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기도 했어요(연구 참여자 C).

저는 친구가 많은데 가장 친한 친구는 W, 두 번째로 친한 친구는 H, 세 번째로 친한 친구는 Z, 네 번째로 친한 친구는 성이 L로 시작해요. 우리는 같은 반이었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모두 저에게 잘해 주었어요. 저를 데리고 나가서 놀고, 운동하고, 탁구를 치기도 했죠(연구 참여자 D).

친구들과 서로 공부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제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줬어요. 우리는 모두 대화를 통해 교류했는데 저는 그때 수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두 구어를 통해 소통했어요. 가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천천히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팀을 나누어 함께 게임도 했어요(연구 참여자 E).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 참여자 중 3명은 일반학교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들 중 연구 참여자 C는 초등학교 때 괴롭힘을 당했지만 중학교를 진학해 새로운 학교로 바뀌면서 좋은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D와 E는 일반학교에서 학급 친구들이 그들을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의 교우관계를 이야기할 때 매우 즐거워 보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C와 D는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에도 잘 적응해 모두 의무교육 단계의 학습을 마쳤다. 다만 마지막에 고입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특수학교에 진학하여 고등학교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 3) 교사와의 관계

### (1) 담임교사에 대한 부정적 기억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면담할 때 흥미가 없었으며 심층적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 않았다.

담임교사에 대해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담임교사는 저에게 관심이 없었고, 담임교사가 세 번이나 바뀌었어요. 첫 번째 담임교사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고, 두 번째 담임교사는 저에게 잘해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담임교사는 저에 대한 관심이 적었어요. 아마 첫 번째 담임교사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이유는 당시에 제가 공부를 잘 못했고,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B).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수업 시간에 내가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저한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 공부와 연관된 어떠한 얘기도 저에게 묻지 않으셨어요(연구 참여자 E).

중학교 1학년 때 담임교사는 매우 엄격해서 만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담임교사는 저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면 교무실로 가 버리셨어요. 저는 특별히 좋아하는 선생님이 없어요(연구 참여자 F).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에서 담임교사는 비정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각 시기의 담임교사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4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때 담임교사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태도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일반학교의 교사들이 주로 청인학생에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중국의 교사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학생들의 학업 성적, 그들의 업무 등급 평가 등과 관련된 일을 처리한다. 또한 교사의 수업 평가와 학생의 시험 성적이 모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학교 교사들은 성적이 낮은 청각장애학생에게 관심이 낮은 편이다. 청각장애학생들은 이렇게 학급에서 소외되어 일반학교 교사와 친밀한 감정을 나누기 어려운 환경이다.

### (2) 담임교사에 대한 긍정적 기억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낮은 관심을 보였지만 도움을 준 교사에게는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담임교사는 국어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약간 외로웠는데 선생님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그런 감정이 없어졌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는 청력이 안 좋아서 앞에서 3-4번째 줄에 앉았고, 중학교 때는 마지막 줄에 앉았어요. 중학교 때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제가 청력이 좋지 않으니 많이 보살펴 주라고 하셨어요(연구 참여자 B).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잘 알려 주시고, 학업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던 본인에 항상 숙제는 다 했는지, 간혹 숙제를 하지 않았으면 보충학습을 해주시기도 하셨어요(연구 참여자 E).

저는 5학년 때 M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첫 줄에 앉아서도 잘 들리지 않을 때 선생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글자를 알아듣도록 도와주셨어요(연구 참여자 G).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6명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리고 과외학습과 공부를 하도록 독려한 것, 성적이 향상되었을 때 칭찬해 준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교우관계를 잘 이끌어 준 것에 대한 것도 일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C는 자신과 학우들의 성적 향상 시 공평하게 대해준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2. 특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수학교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여유롭고 간단한 학습, 나를 더 잘 도와주는 학교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의 면담 분석 범위는 <표 7>과 같다.

<Table 7> School life Experience at Special School

Main category	Medium category	Minor category	Concept
School life experience at special school	Easy & simple learning	Easy-to-follow class materials	Easy to understand, teacher explains slowly and attentively, relaxed and easy, interesting learning materials, less learning materials compared to general school, students can be more active, improvement in grade, less stressful compared to general school, class materials that I learned before
		Good academic performance	Simple exam, not stressful, prepared hard for exam, want to go to college, good grade, little stress about grade
	School that aids me better	Kind classmates	Good communication, helpful to each other, acceptance, taught sign language, kind classmates, good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made good friends
		Patient and caring teacher	Teaches well and attentively, helps with study, good communication, not strict in class, kind and patient, respects deaf students and treats them well

## 1) 여유롭고 간단한 학습

### (1) 이해할 수 있는 수업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반학교에 비해 쉽고, 진도가 느려 연구 참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수업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본문을 배울 때 선생님은 작가가 누구인지, 작가의 배경은 무엇인지, 작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선생님은 수어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전 학교보다 이 학교에서는 듣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국어와 수학이에요(연구 참여자 A).

큰 어려움도 없고 난이도가 조금 있을 뿐 대부분은 모두 할 만해요. 저는 중학교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평소에 예습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근데 딱 반만 예습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시고 따로 복습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교과서는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해요(연구 참여자 D).

저는 원래 특수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수학교가 일반학교보다 좋지 못하고 덜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보통의 일반학교들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시간이 긴 반면에 특수학교는 수업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수학교에 오고 나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발짝 뒤처지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일반학교를 더 좋아했어요(연구 참여자 G).

이상에서와 같이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특수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대한 질문에서 자주 언급한 내용은 ‘쉬워요’, ‘간단해요’, ‘이해할 수 있어요’였다. 기타 의견으로 연구 참여자 G학생이 학습 내용이 조금 적다며 학교에서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했으며, 또 다른 3명의 학생은 특수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이 일반학교에서의 학습 내용과 중복된다고 말했다.

### (2) 상위권 성적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중요한 지표인 성적에 대해서 일반학교에서는 성적을 이야기할 때 답답해했던 반면에 특수학교에서의 학업 성취도를 이야기할 때는 자신감을 보였다.

저는 지금 반에서 성적이 그런대로 괜찮아요. 반에서 2등, 3등 정도 해요. 원래 반에 14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분반이 되어서 지금은 2개의 반에 학생이 일곱 명씩 있어요. 시험 스트레스의 경우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연구 참여자 A).

저는 우리 반 친구들보다 공부를 잘해요. 반에 13명이 있는데 저는 1, 2등이에요. 스트레스가 없고, 아주 편안해요. 일반학교에서는 억압적이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더 쉽고 좋아요(연구 참여자 D).

우리 학교는 시험이 많지 않고 작은 시험들이 있어요. 저는 수학 영어 시험을 보는데 제 영어 성적은 1등이에요. 전에는 학습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학은 4, 5등 정도예요. 수학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중학교 때 우리 반 인원은 7명도 안 됐어요. 그 때 저는 반에서 2등, 3등을 했어요(연구 참여자 F).

이상에서와 같이 전체 연구 참여자 중 특수학교에서의 성적이 3위 안에 든 학생은 5명으로, 일반학교에 비해 특수학교 수업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이 그들이 자신감을 쌓는 비결이라고 했다.

## 2) 나를 더 잘 도와주는 학교

### (1) 친절한 학우

특수학교 학생들은 일반학교에 비해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수용률이 높아 특수학교에 갓 전학 온 연구 참여자들이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는 이 학교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이전의 일반학교에서는 외로웠고 차별이 있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특수학교 친구들이 더 열정적이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 줬어요. 제가 다니는 특수학교에는 매점이 있는데, 이 곳은 수다를 떨고 밥도 먹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곳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는 매일 수업이 끝나자마자 매점에 가서 밥 먹자고 말해요. 제가 3학년 때 처음 학교에 왔을 때 저는 그들의 수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반 친구들한테 저에게 수어를 가르쳐 주라고 했어요. 저는 반 친구들과 입과 손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해요. 우리 반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수어와 말을 함께 사용해요(연구 참여자 A).

친구들과 사이가 매우 좋아요. 친구들이 수어를 가르쳐 줬는데 제가 수어를 못 해서 글로 대화해요. 저는 우리 반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고 대부분은 공부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모두 너무 열정적이었어요. 모두 정말 잘 대해 주었고, 키가 매우 크다고 해줬어요. 저는 평소에 모두를 위해 청소, 운동, 공부를 해요(연구 참여자 D).

*A Qualitative Study on Transition Experiences from General to Special Schools -with a 125 Focus on Hearing-Impaired Students in China-*

제가 처음 특수학교로 전학을 왔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제게 수어를 가르쳐 줬어요. 친구들은 제가 과거에 수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저를 위해 칠판에 글을 썼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대부분 수어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원하는 것을 모두 말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E).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4명은 특수학교로 전학 온 후 학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특수학교로 전학을 오기 전에는 수어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모두 특수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수어를 통해 학급 친구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했고, 그 중 3명은 특수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특수학교를 더 좋아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A는 일반학교 생활보다 특수학교에서의 생활이 더 좋은 이유를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는 일반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를 꺼리다가 지금은 성격이 바뀌어 친구들과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였다.

## **(2) 인내심을 갖고 배려해 주는 교사**

특수학교 교사들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일반학교 교사들이 주는 것에 비해 극히 적거나 없기 때문에 이번 면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 의지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담임교사는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시고, 우리와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한번은 담임교사가 감기에 걸려서 제게 약을 달라고 하셨는데[보건 선생님은 담임선생님께서 편찮으신 것을 알고는 약 대신 침과 뜸을 준비해 주겠다고 했어요(연구 참여자 A).

특수학교의 담임은 수학을 가르치는 남자 선생님이로 40대의 늙은 아저씨예요.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또박또박 말씀하시지만 수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저한테 정말 잘해 주시고 배움에서도 정말 좋은 분이예요. 선생님이 저보고 귀엽다고 하셨어요(연구 참여자 D).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더 엄격하지만 특수학교의 선생님들은 더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한 것 같아요. 일반학교는 규율도 엄격해서 숙제도 까다롭고 어려워요. 반면에 특수학교는 그냥 앉기만 하면 돼요. 수업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어요. 숙제도 매우 간단해요(연구 참여자 F).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4명은 특수학교 교사들이 잘 가르치고, 세심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들이 온화하고 인내심이 있고 친구 같아서 좋다고 생각했다. 또한 3명의 연구 참여자는 특수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공부를 돕거나 보살폈다고 답변했다.

### 3. 청각장애학생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본 연구는 청각장애학생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하여 교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과 친구와 긍정적 관계 형성,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의 면담 분석 범위는 <표 8>과 같다.

<Table 8> Enjoyable School Life

Main & medium category	Minor category	Concept
Enjoyable school lif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eachers	Good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teacher takes good care of students, students actively communicate with teacher, teacher understands students well, teacher accepts students as they are
	Positive relationship with classmates	Good solidarity among classmates, good relationship among classmates, makes good friends, friends help each other
	Reduced academic stress	Reduced burden of class assignment, easier exam

#### 1) 즐거운 학교생활

##### (1) 교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학교든 특수학교든 교사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 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좀 더 배려하여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선생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 B).

저는 일반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사와 청인학생들이 농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우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수어통역과 자막을 달아주고, 과외를 더 해줄 필요성은 못 느껴요. 그냥 청인학생들과 교사들이 우리에게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배려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C).

학교는 믿을 수 없어서 저는 제 자신이 다 해 나갔어요. 수줍음도 많아서 선생님께 먼저 여쭙보지도 않았고요. 다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잘 물어봐서 그 친구가 대신 해결

해줬어요(연구 참여자 G).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4명은 교사와 관계가 즐거운 학교생활 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B, E, G는 교사와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은 교사는 청각장애학생을 좀 더 보살피 줘야 하며, 학생도 교사를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교사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C는 학교에서 청각장애학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는 데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청각장애학생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 (2) 친구와 긍정적 관계 형성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원만한 교우관계도 즐거운 학교생활을 유지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더 이상 외로운 생활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이전 학교에도 놀거리가 많았지만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비록 큰 희망을 품고 있지는 않지만 저와 친구사이의 관계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제가 공부를 못해도 좀 즐거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가 적은 것이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이 티격태격하고, 같이 놀고, 서로 모르는 것을 배우고, 활동이 있으면 같이 참가하고, 만약 일반학교로 돌아가면 저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더 신경 쓸 것 같아요. 적어도 나 자신을 바꿔보고 싶어요. 조금 더 대범하고 겁이 너무 많지 않게요. 예전의 나를 바꿔서 친구들에게 나를 다시 인식시켜 주고 싶어요. 저는 현재의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연구 참여자 B).

친구들과의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일반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잘 찾지 않았어요. 특수학교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친절하시죠. 특수학교에서의 활동은 학생들끼리 소통 또는 학습을 서로 도우면서 해요. 일반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아주 열정적이고 모두 같이 잘 어울렸어요(연구 참여자 E).

이상에서와 같이 연구 참여자 중 5명은 교우관계에 대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필수 요건으로 꼽았다. 그 중 연구 참여자 C, D, E는 일반학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일반학교의 학생들이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연구 참여자 A와 B는 일반학교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학교에서 그들이 청인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소외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긍정적 교우관계는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

일반학교에서의 학업 스트레스는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공감하였다. 면담 내내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가 면담 전체의 중심 단어였고, 특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예전에 일반학교에서는 시험과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학업 스트레스는 늘 저의 불만이었죠. 일반학교는 숙제가 조금 줄어들고, 시험이 좀 더 쉬웠으면 좋겠어요(연구 참여자 A).

일반학교에 있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학업적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어요. 숙제도 많았었죠(연구 참여자 D).

학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성적이 좋지 못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도 잘 못 잤어요(연구 참여자 F).

이상에서와 같이 면담 참여자 중 4명은 학교에서 공부, 시험,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말했고, 한 학생은 학교에서 시험문제가 쉬워지고 과제가 줄어들기를 원했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현재 회류 경험이 있는 특수학교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경험과 특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첫째, 일반학교에서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때 교실 앞 자리에 배치해 주는 것 외에 그들을 도울 만한 어떠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다. 일반학교는 학습 경쟁이 치열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학기마다 여러 권의 교과서를 배우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이 많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은 별도의 학습 지원 없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청인학생과 달리 청각장애로 인해 음성언어의 수용능력이 낮고, 청지각의 활용이 부족하여 학업 성적은 일반학생보다 현저히 낮다(羅秀翠, 2016)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은 장애를 지닌 학생들을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 제한 환경’이란 장애를 지닌 학생이 자신에게 적절한 정도로 일반적인 기능을 보이는 또래들과 함께 교육받아야 함을 의미한다(Lerner, 2003). 즉, 분리교육 속에서 제한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교육적 혜택을 받기 위해 그들의 청력 손실로 인한 여러 가지 교육적 서비스를 국가의 법적 테두리 속에서 수어통역사, 속기사, 학습 도우미 등의 서비스를 자신의 청력 손실의 유형과 그들의 학습 정도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교육권을 의미한다(권순우, 2010). 하지만 중국의 청각장애 통합교육(수반취독)의 현실은 ‘제한된 환경의 최소화’가 아니라 ‘제한된 환경의 극대화’의 수업 환경 현실 속에서 오로지 그들 자신의 잔존 청력 활용 정도와 동기에 근거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에 모든 교육적 결과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학급에서 학습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연구 참여자들이 전학하는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중국에서 성적은 학생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자 교사의 수업 성과이다. 중국의 부모들 역시 학업성적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간주하여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교 적응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청각장애학생의 학업성적이 해당 학급에서 중·하위권 수준이며, 수반취독에 있어서 청각장애학생의 학업성적이 일반적으로 청인학생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謝鈺涵, 謝鳳英, 2018).

둘째,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우관계는 청각장애학생이 학교에서 형성할 수 있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청각장애학생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반학교에서 생활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면담에서 공부를 잘하지 못해도 교우관계가 좋으면 괜찮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학교가 좋아도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학교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해 주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면담 내용 중 연구 참여자 5명은 일반학교에서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해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는 鞠雅坤(2016)의 연구 중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전반적인 또래 관계가 낙관적이지 않고, 학급이라는 집단에 속한 청각장애학생들의 또래에 대한 수용도가 낮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청각장애학생은 통

합교육 학급에서 청인학생에게 수용도가 낮아 차별과 부당한 대우 등을 받기 쉽다는 연구와도 그 내용이 일치한다(王海迪, 2021).

일반적으로 경도 난청학생은 지적 능력, 생활 적응력 등에서 청인학생과 큰 차이가 없다(馬珍珍, 2006). 연구 참여자 C, D, E는 모두 이 부류에 속하며, 청력 손실 정도가 비교적 낮고, 학급에서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큰 지장이 없으며 같은 학급 학생들과의 융합 정도가 비교적 높다. 본 연구 참여자 중 연구 참여자 C와 연구 참여자 D는 일반학교 또래 학생 수용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연구 참여자 C는 발음의 명료도도 양호하고, 보청기를 착용해 청인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연구 참여자 D 역시 말을 잘해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그는 국제학교에 다녔으며, 그 학교는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도가 다른 일반학교 보다 훨씬 우호적이었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학생은 청인학생과의 교제에서 긍정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학급에서 청인학생들과 교류의 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江小英, 2013).

셋째,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교사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청각장애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다. 많은 일반학교 교사들은 청각장애인을 본 적이 없어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생활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학급에 배정된 청각장애학생들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교사의 전문성은 청각장애학생의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학교에 따라 전문교사의 자원도 부족한 형편이다(李拉, 2015).

일반학교 교사의 수반취독에 대한 태도는 장애학생의 발달과 수반취독 실시의 효과와 교제활동의 진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급의 다른 청인학생들의 수반취독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청각장애학생과 청인학생과의 교류도 많다고 하였고(鍾經華, 2011), 이와 더불어 유혜경(2007)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이 장애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가진다고 하였다.

## 2. 특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경험

첫째, 특수학교에서의 여유로운 학교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특수학교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을 전부 가르치지 않고 요점만 골라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 어려운 부분은 선택적으로 가르치거나 학생에 따라 일부만 가르친다. 특수학교는 일반학교 학습내용에 비해 교과서의 내용을 완전히 습득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교육하여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더 나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한다(羅秀翠, 2016). 연구 참여자 D는 현재 특수학교 고등부의 교과서가 중학교 때 교과서와 같으며 특수학교의 교과서는 현재 일반학교의 중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과 내용 수준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쉽고 간단해서 수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에 따라 성적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였다. 상위권의 성적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심어 주고 자신감을 심어준다(蔡麗麗, 2015).

둘째, 연구 참여자에게 도움을 주는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그들이 특수학교로 전학 오기 전에는 수어 사용이 어려웠지만 전학 후에는 친구들에게 수어를 배우며 서로 소통할 수 있어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수어가 청각장애학생들과의 관계를 개선해주며 의사소통의 역할을 해 준다는(田彥鵬, 2019)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대부분 소규모 학급으로 수업하며 각 학급의 학생 수는 7-14명 사이로 유지되고 있다. 작은 학급의 수업 운영은 특수교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成彥, 2013). 그리고 특수학교 교사는 대부분 특수교육과 졸업생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일반학교 교사보다 뛰어나고, 중국 정부는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관리 측면에서도 특수학교 교사들은 일반학교 교사들보다 학생들을 더 광범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청각장애학생을 매일 접촉하면서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도 일반학교 교사보다 뛰어나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각장애학생들이 생각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첫째, 교사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학교에서 학습할 때 일반교사와의 관계가 대부분 원활하지 않았다. 반면 특수학교 교사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따뜻하며 친구처럼 매우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화기에애한 관계는 학생과 교사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어려움이 생겼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 학생이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周姊毓, 賈天龍, 2015)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친구와 긍정적 관계 형성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과 친구와의 사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다. 청각장애학생과 청인학생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이해 및 여유있는 분위기 속에서 친분을 쌓을 수 있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賀薈中, 左娟娟, 2012).

셋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에 대해 살펴보면, 2020년부터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호응을 얻었고, 2021년 7월부터 중국 국무원(중화 인민 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과제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학교는 학생에게 과도한 과제를 내주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학교 외의 모든 학원을 폐쇄되었다(徐晴, 2022). 하지만 특수학교는 쉽고 간단한 수업내용 때문에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일반학교보다 쉽고 적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4.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전학 이력이 있는 특수학교 학생 7명으로,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그 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연구 참여자의 전학 시 학년을 초등학교 단계와 중학교 단계로 구분하여 보다 폭넓게 비교 분석하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전학이 대부분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을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일반학교로부터 어떤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연구 참여자 7명은 통합교육 현장인 일반학교에서 학업 및 정서·심리적으로 한계를 느껴 특수학교로 전학을 온 학생이므로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보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다소 가지고 있어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 참고문헌

- Booth, T., Nes, K., & Stromstad, M. (2003). *Developing Inclusive Teacher Education (1st ed.)*. Routledge.
- Jo, E. J. (2014). The Experiences on School Life of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Who were Transferred from a General School to a Special School. Master's thesis, Gongju University.

*A Qualitative Study on Transition Experiences from General to Special Schools -with a 133 Focus on Hearing-Impaired Students in China-*

- [조은주(2014).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환한 경도 정신지체학생의 학교생활 경험.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S. A., Choi, S. K. (2009). The Qualitative Research for Reality,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 on Inclus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0(4), 471-490.
- [김선애, 최성규 (2009). 청각장애아동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471-490.]
- Kim, T. S., Kwon. S. W. (2019). The Rearing Experiences and Awareness about to Education of Mothers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0(2), 243-273.
- [김태숙, 권순우 (2019).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2), 243-273.]
- Kim, Y. C., Jung S. W. (2015). Documents Analysis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1(6), 253-285.
- [김영천, 정상원 (2015).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문서 분석.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 Kwon, S. W. (2010). Qualitative Research on the School Adjustment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in Inclusive Educational Settings. *Journal of speech & hearing disorders*, 19(3), 133-153.
- [권순우 (2010). 통합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19(3), 133-153.]
- Lerner, J. W. (2003). *Learning disabilities: Theories, diagnosis, and teaching strategies*. Boston: Houghton Mifflin.
- Park. M. H., Kwon. S. W. (2020).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Current Inclusive Education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1(4), 125-154.
- [박미혜, 권순우 (2020).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과 경험.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4), 125-154.]
- Yu. G. W., Jeong. J. W., Kim. Y. S., Kim. H. B. (2019). *Understa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oul: Parkyoungsa.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9).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Yu, H. K. (2007). A Literature Review on the Important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in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Special Education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46(4), 19-54.
- [유혜경(2007).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과 관련된 주요 요인에 대한 문헌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4), 19-54.]
- 教育部(2020). 2020年全國教育事業發展統計公告. 教育部.
- 中國殘疾人聯合會(2017). 殘疾人教育條例. 中國殘疾人聯合會.
- 蔡麗麗(2015). 初中生作業心理負擔的現狀調查研究. 寧波大學 師範學院 碩士學位論文.
- 成彥(2013). 我國韓校教學質量研究綜述. *綏化學院學報*, 1(7), 48-52.

- 鄧猛(2004). 特殊教育管理者眼中的全納教育:中國隨班就讀政策的執行研究. *教育研究與實驗*, 4(4), 41-47.
- 賀蕾中, 左娟娟(2012). 近十年來我國特殊兒童同伴關係特點研究. *中國特殊教育*, 1(2), 8-11.
- 江小英(2013). 農村小學生對隨班就讀同伴接納態度的調查報告. *中國特殊教育*, 3(12), 10-18.
- 金晨潔(2019). 隨班就讀的聽力障礙兒童回歸主流問題研究. *教育教學論壇*, 2(2), 103-104.
- 鞠雅坤(2016). 小學隨班就讀聽力障礙兒童班級同伴交往的個案研究. 華東師範大學 教育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拉(2015). 對新中國特殊師範教育制度建設的考察. 南京師範大學 教育學院 博士學位論文.
- 梁旭(2017). 聽障兒童學前融合教育支持策略探析. *黑龍江科學*, 14(14), 94-95.
- 羅秀翠(2016). 聽力障礙兒童在普通小學的滿意度調查. *快樂閱讀*, 6(4), 22-23.
- 馬珍珍(2006). 初中聽力障礙學生同伴關係及其影響因素研究. 華東師範大學 師範學院 碩士學位論文.
- 田彥鵬(2019). 回流聽障大學生身份認同研究. 重慶師範大學 特殊教育學院 碩士學位論文.
- 王海迪(2021). 隨班就讀學生同伴關係個案研究. 遼寧師範大學 特殊教育學院 碩士學位論文.
- 謝鈺涵, 謝鳳英(2018). 融合教育環境中聽覺障礙兒童“回流”問題探析. *教育現代化*, 2(22), 241-242.
- 徐晴(2022). 中國“雙減”背景下基礎教育階段學生作業布置問題及策略研究. *科教文彙*, 1(8), 126-128.
- 餘小燕(2007). 隨班就讀聽力障礙兒童“回流”的反思與調查. *中國聽力語言康復科學*, 7(1), 44-46.
- 鍾經華(2011). 北京市普通中小學教師對隨班就讀態度的調查. *現代特殊教育*, 2(9), 12-14.
- 周潤嫻(2019). 隨班就讀學生回流歷程及影響因素的質性研究. 重慶師範大學 特殊教育學院 碩士學位論文.
- 周姊毓, 賈天龍(2015). 聽力障礙兒童學校適應問題及對策研究. *綏化學院學報*, 5(1), 55-58.

<국문 초록>

##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의 전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중국의 청각장애학생을 중심으로 -

양 초 연 · 권 순 우

**[목적]** 본 연구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생활과 특수학교에서의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청각장애학생이 경험한 두 환경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며, 청각장애학생이 생각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요인이 무엇이며,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한 7명의 중국 중·고등학교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청각장애학생의 일반학교에서의 학교생활 경험으로 청각장애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학습활동을 이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친구와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관계를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다. 특수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도와주는 친절한 학우였고, 교사들도 인내심을 갖고 나를 배려해 주는 친절한 교사로 표현되었다. 셋째, 청각장애학생들은 늘 교사와 호흡하기를 원했고, 그러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좋은 교우관계를 통해 청각장애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청각장애학생과 청인학생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 및 여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친분을 쌓을 수 있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에 좋은 조건임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통합교육에 대해 학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수업 내용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업 참여에 한계가 있어 특수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각장애, 개별 심층 면접, 전환 경험

논문 접수(Received): 2022. 11. 10. / 심사 시작(Examined): 2022. 11. 10. / 게재 확정(Accepted): 2022. 12. 08.